지역 소식통

### 고창군, 건고추장터 매주 주말·고창장날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고추재배농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건고추 장터'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7시 심덕섭 고창군수가 건고추장터를 찾아 고추농가를 격려하고, 고추상인 등 지역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창 건고추장터는 11월23일까지 매주 주말과 고창 장날(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오전 5시부터 오후1시까지 부대시설과 고객쉼터를 제공해 농가와 소비자들이 고추를 사고 팔기가 한결 편해졌다.

고창 건고추장터는 고창군에서 생산된 품질좋은 고추를 농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터다.

청정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라 해풍고추로 불리는 고창산 고추는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황토에서 생산되어 당분 함량이 높고 감칠맛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사회적 제품 판매 똑똑한 달빛장터 성료

정읍시는 지난 19일 정읍사문화공원에서 사회적·마을기업 제품 판매행사 '똑똑한(talk talk heart) 달빛장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7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공동체가 참여해 제품과 브랜드 홍보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행사에는 약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총매출은 약 180만원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또 꽃가마체험, 전통놀이체험, 목공예놀이체험 등 체험 행사와 농악단공연, 버스킹 공연 등으로 더욱 풍성한 장터가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역인재 육성·평생학습 활성화

## 고창군, 대학생 등록금지원 4억9천만원·장학금기탁액 2억9445만원… 역대 최대

고창군이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 학습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고창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2년(2023~2024년)간 218명에게 4억9000만원 상당이 투입됐다.

또 대학생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당초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민, 출향인 등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80명이 2억9445만원, 2024올해 7월 현재 34명이 1억194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특히 창의적인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14개 시군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고창중학교 부지 내에 '청소년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시민대학', '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에 선정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고 있다.

민선 8기 고창군은 지난해 7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군 직영으로 전환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자살·자해 예방, 성격유형검사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 청소년수련관 1층 열린공간에 가상현실(VR)스포츠실을 조성하고, 일요일 전담 근로자를 추가 배치, 공휴일제외 일주일을 휴무없이 운영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였다. 청소년문화센터도 올해부터 전면 무료화 하면서 청소년 이용인원이 2023년 상반기에 비해 2024년 상반기 260%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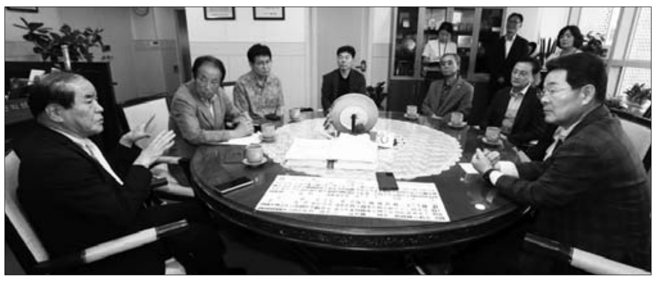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윤석정 전북자치도 애향본부 총재, 부안군 방문

## 지자체-애향본부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윤석정 전북특별자치도 애향본부 총재가 23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장용석 부안군 애향본부장 등과 함께 전북특자도 및 부안지역 발전을 위한 애향본부와 지자체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며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윤석정 총재는 "오늘의 만남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부안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부안군에 오는 내내 마음이 설렜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에 방문해 주신 윤석정 총재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뜻깊은 만남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속의 부안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애향운동본부는 1977년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의 필요성이 분출돼 순수 민간 사회단체로 창립된 이후 최근에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투쟁, 제22대 총선 화합교례회 및 전북특자도 재도약 원탁회의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및 전북애향장학재단 장학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점검

고창군이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철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금까지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민선8기 고창군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완료 29건(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 포함) △정상추진 50건으로 현재 6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조례 제정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확대 △명품 관광 푸드코트 설치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감염병 전담조직 강화 등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공약 이행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으로 △관계인구 10만 시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청년주책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확대 등이다.

또한 군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업인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 우대 △김치 특화단지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 등에 대해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 진서면과 줄포면 일원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민선 8기 발로 뛰는 후반기

##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 진서면과 줄포면 일원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대집행이 시행된 진서면 곰소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시장 상인들과의 원만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어 진서면 요지 5구역(사적)을 방문 정밀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진서면 요지 5구역은 호남지역에서 완전한 형태로 발굴된 삼국시대 탄요 유일의 사례로 그 희소성과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요지 5구역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교육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방문해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공사를 완료한 제1호 부안군 워케이션센터 현장을 둘러봤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워케이션센터는 탁월한 자연경관과 최신 업무 시설 등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부안군이 워케이션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부안군의회 김두례의원, 지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은 제35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진 대응력 강화와 내진 보강 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을 촉구했다.

김두례 의원은 지난달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5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된 상황을 언급하며, 지진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회로 전년 대비 37.7% 증가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2배로 증가했으나, 전북의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진 행동 요령 교육과 체험, 철저한 내진 설계,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책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진 대피 매뉴얼 점검, 지진 교육 강화, 내진설계 점검 및 내진 보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며,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